

## 행복한 금요 편지

# 아내에게 보내는 5월의 행복편지

조만영<sup>1)</sup>

여의도고등학교 교장


26년 전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을 나에게 맡겨주신 장모님과 당신을 생각하면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순진하고 정직하고 비계산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소.

첫 만남 후 한 달만에 결혼을 한 터라, 신혼여행 가서 손잡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 취하는 것조차 쑥스러워 했던 우리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섰으니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구려.

그 동안 세 아이를 낳아 훌륭하게 잘 키워 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소.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통통하게 살이 붙어 있던 당신이 셋째 아이 4.3Kg를 낳고 나서 훌쩍하게 살이 빠진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더 마르고 연약한 모습이 된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오.

바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 와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항상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대해 주는 당신의 모습은 때로는 천사와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오. 하루 종일 혼자 외롭게 지내던 어머니가 당신만 퇴근하고 오면 얼굴에 생기가 도시며 당신에게 이것 저것 물어도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자상히 얘기해 주는 당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조만영 회장님은 현재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서울남부지역 회장과 여의도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회 문턱 한 번 안 넘어 봤던 당신이 남편 따라 교회에 다니며, 큰 불평하지 않고 교회 일에 봉사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비록 큰 믿음은 없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리라 믿어요.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감사할 일인지 요즈음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다오. 아이들 다 키워 출가시켜 놓고 나면, 서로 마음 의지하며 함께 할 사람은 부부외에 누가 있겠소. 가끔 서로 심통부리며 말다툼 할 때는 서운하고 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몸 아파 누워있을 때 약 한 봉지라도 사다 주고, 등이라도 어루만져 주며 위로해 줄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오. 서로 심심하고 외로울 때 따뜻한 말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디 혼자 외출하기 싫을 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리오.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 왔던 날보다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적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추억으로 함께 만들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은 특별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이라 했으니,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갑시다.

항상 밝은 당신의 모습 그 속에서 난 행복을 찾겠소. 당신을 사랑합니다.

2007. 8. 27 새벽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 조만영 올림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